

교육부장관 역임한 영양학자 金淑喜박사 가족

교육부장관을 지낸 영양학자 金淑喜박사는 의사로 평생을 의료계에 바친 아버지 金致洙박사에 이어 4남2녀가 모두 과학분야에 몸담고 있다. 화학을 전공한 장남 容駿박사에 이어 차남 容均, 3남 容煥, 4남 容沃이 의료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장녀인 淑喜박사도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과학名家」를 이루고 있다.

의료계에 평생바친 선친 金致洙박사 5남매가 의사·교수로 과학분야 외길

다소 직설적이지만 원칙에 충실한 학자라는 강한 인상을 풍기는 이화여대대학교 가정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자前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숙희교수의 家系는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4남2녀가 과학기술자로 성장, 그야말로

과학명가를 이루고 있다. 이화여대 후 문에 자리하고 있는 金淑喜교수택은 지붕이 뾰족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다. 2층으로 안내되어 간 곳은 손님맞이 응접실로 벌써 한 손님이 가고 난 다음인지 아직 채 식지 않은 찻잔과 다과가 놓여있었다.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그런지 훈훈하면서도 손때가 묻어있는 쇼파 팔걸이가 참으로 정겨웠다.

큰오빠 容駿은 화학교수

평생을 醫療界에 몸담은 아버지 金致洙박사와 어머니 洪喜男여사 사이에 4男2女중 장녀로 태어난 김숙희박사는 위로는 金容駿, 容均, 容煥 등 세 명의 오빠가 있으며 그리고 여동생 容珠와 남동생 容沃을 두고 있다. 이중 차남과 삼남, 사남이 모두 아버지의



▲ 金致洙박사와 洪喜男여사의 「회혼례」에 가족과 함께

대를 이어 의학계에 몸담고 있고 김숙희교수는 여자로서 식품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식품영양학을 전공, 교육부장관으로 잠깐 의도를 한 것을 빼고는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졸공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김숙희박사의 아버지인 김치수박사는 이조 말에 벼슬을 지낸 김봉익씨의 막내 아들로 다소 유복하게 태어났다. 천안에서 일찍이 자리잡은 김치수박사는 이 마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소유한 분으로 그 당시에도 자녀들이 입학시험을 보는 날에는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는 등 자녀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걸로 유명하다. 그래서 자식이 남자건 여자건 일단 공부를 하겠다는 자녀에 한해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 덕분에 자녀들은 공부 하나는 원없이 할수 있었다고 전한다.

父親은 천안서 公醫로

천안에 가면 60년의 전통과 권위를 가진 광제의원원이 있는데 바로 김치수박사가 손수 일궈낸 병원인 것이다. 휘문고등보통(現 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의학을 전공한 후 바로 지역의 의료(public health)를 담당하는 공의(公醫)를 선택, 삼교와 조치원에서 공의를 두루 거친 후 1937년 천안에 정착하게 된 것이 오늘의 광제의원원의 탄생배경이다. 장녀인 김숙희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항상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붐볐는데 옛날에는 전문의가 따로 없고 한 병원의 의사가 신경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모

든과를 담당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는 어쩌면 그렇게도 아픈 사람이 많은지 온몸에 부스럼딱지가 난 사람, 뼈가 탈골되어 몸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 위험에 빠진 임신부에 이르기까지 별별 환자들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손에 의해 고쳐서 나가는 환자들을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가 무척 존경스러웠다고 전한다. 특히 아이 몸이 둘러진 임신부를 치료하는데는 거의 아버지를 따를 사람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개 산모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 아이를 포기해야 했는데 아버지는 아이를 바로 돌려 산모와 아이 모두를 살려내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아버지인 김치수박사는 초등학교 신체검사나 마을의 보건을 담당할 정도로 열심이셨는데 아마 이런 아버지의 마음 속에 선교사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은 아버지는 당시 감리교회밖에 없었던 천안에 직접 장로교회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부흥되어 충청도에서 가장 큰 천안 중앙장로교회가 되었다고 한다.

식구들 중에서도 독서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남인 용준박사는 고대 화학과 교수로 봉직하다 은퇴하고 현재는 수원대학 대우교수로 있다. 용준박사는 일찍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기화학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인류의 미래는 환경이 좌우한다는 이론으로 1965년 아무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장을 마구 지어낼 때부터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피력한 사건은 유명하

다고 한다.

둘째 容均, 셋째 容煥은 의사

독서광이기도 한 용준박사는 또한 과학철학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 과학과 종교, 미래와 환경관련 저서도 많이 집필하였는데 특히 르네 두보의 번역서는 잘 알려진 책이다.

차남인 용균은 6.25동란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으나 휴전후 전남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현재 아버지가 개원한 광제위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한남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용균은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개척해 놓은 천안 중앙장로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고 있다.

삼남인 용환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병원에서 피부과 과장을 지내다가 현재는 한남동 피부과 의원을 개업,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장녀인 숙희교수는 아버지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큰 오빠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책읽기를 조금 소홀히 하면 늘 책을 가까이 하는 큰 오빠에게 뒤지는 것같이 책을 더욱 가까이 하는 독서습관이 몸에 베어 이대에서도 김숙희교수하면 아직도 '책을 읽고 있는 교수'라는 평을 듣는다고 한다.

위로 세오빠를 두었기 때문에 뭐든지 경쟁을 해야만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한 김숙희교수는 하루는 오빠들하고 한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데 오빠들은 한것가락만 집어들어도 갈치 반토막이 없어 김숙희교수 몫으로 나온 갈치 두 토막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을 길러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이 습관은 유학시절 식사를

후다닥하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뛰어가야 했던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김숙희교수는 어릴 적에 의사였던 아버지를 보면서 환자의 병을 고쳐 주는 일 자체가 무척 좋아보였고 의미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닿는다면 본인도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데 일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던중 이화여고 2학년 영양화학시간에 우유에 비타민D를 강화하여 섭취하면 후두암도 나올 수 있다는 강의의를 듣고 깊이 감명을 받아 여자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에 화학을 첨부한 학문을 전공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아직까지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처럼 식품을 화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과를 찾던 중 3학년 수업부터 영양학과목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이대 가정대학에 있다는 큰 오빠의 조언을 따라 이대 가정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또한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는 영양학으로 Ph.D를 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영양학으로 Ph.D를 주는 학교를 찾기 시작했다.

27세 때 梨大 영양학교수로

그때만 해도 여자가 공부해서는 뭐 하느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김숙희교수가 갈만한 대학원이 국내에는 마땅히 없자 그 자리에서 바로 미대 사관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대학중에서 영양학으로 Ph.D를 주는 학교의 원서를 10여개 구해 입학허가신청서를 보냈는데 텍사스여대와 오레곤, 코넬대에서 답장이 왔으나 모든 조건이 맞는 텍사스대학에서 영양학을 공부하

게 되었다고 한다.

공부를 시작한 첫 학기는 별로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으나 미국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고 여기는 생화학 과목에서 톱을 차지하면서 지도교수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학길에 오를 때 미국에서는 파티가 많으니까 그때 입으라고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한복과 뽕족구두, 외투를 싸가지고 간 에피소드도 있었으나 1961년 유학길에 올라 1년3개월만에 Master를 끝내고 3년반만인 64년도에 Ph.D를 기어코 따냈다고 한다. 풍족하진 못했지만 참으로 열심히 보낸 유학생생활을 마칠 무렵 우연히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대 총장이었던 김옥길여사가 가정대학 내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니 해외 유학생중 영양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을 찾아오라는 특명을 받고 온 김은우선생을 우연히 만나게 오늘 이대 식품영양학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전한다. 귀국 당시 김숙희교수는 27세로, 이화여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대에 돌아온 김숙희교수는 청계천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철장 재료들을 사다가 학생들과 실험할 쥐방을 만들었다. 쥐가 그득한 쥐방에서 학생들과 짜장면을 시켜놓고 밤새 연구하다가 쥐에게 짜장면을 먹이며 때론 쥐의 배를 가르며 연구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학생들과 함께 연구했던 시간들이 제일 소중한게 여겨진다고 회고한다.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했던 탓인지 뭔가 사회에 봉사할 길이 막연해 YWCA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부회장직을 주어 본

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숙희교수는 여기에서 농촌 부녀자들의 영양실태상황이라는 연구를 위해 독일에서 연구비를 보조받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당시 YWCA의 회장이었던 김갑평씨가 정무장관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김교수가 자연적으로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여성단체모임에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이 김영삼대통령과 인연이 되어 교육부장관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4남인 용옥박사는 대학만 여러군대를 나올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한데 미국의 하버드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대에서 기철학을 강의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돌연 원광대 한의학과에서 다시 6년간을 공부하여 한의사 자격증을 딴 후 현재는 동송동에 있는 도월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이 되었다.

동생 용옥은 한의원 개업

특히 용옥박사는 환자에 대한 생활을 봐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독특한 치료법으로 하루에 8명 이상의 환자는 절대로 보지 않고 30분 정도 한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파악한 후 진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자녀들이 의료계나 의료와 관계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각자가 가고 있는 길은 모두 달라 보이나 아버지가 걸어온 국민건강을 위하여 이바지해 온 한 평생이 자식들에게도 이어져 비록 자연과학이나 응용과학을 할지언정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깊었다.

하정실 <본지 객원기자>